

“CT 연구원 광주 유치를”

(문화콘텐츠기술)

“문화수도’ 성공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발전 1주년 세미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해 고부가 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을 광주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18일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주발전 1주년 세미나에서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설립이 명시되고 있었으나, 새 정부 들어 입지가 재검토되고 있는 기관이다.

그는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 광주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광주 유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또 “문화전당과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CT연구원 등이 결합해 ‘문화예술의 발전-콘텐츠 작업-기술력 제공’이라는 3각 축이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문화창의산업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CT연구원이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는 여론과 당위성도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문화의 전당’이 문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실질적 프로그램이 실현적으로 기획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문화전당이 자

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부적 생산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부적 생산력이 외부적 생산력으로 연계되고 확산돼 실제적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CT연구원의 유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매주 화·목요일 강좌 개설

광주·전남생태귀농학교 제14기 강좌가 개설된다.

강좌는 18일부터 11월4일까지 매 주 화·목요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총 17차례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개인 15만원, 가족 25만원이다.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귀농학교 교장을 비롯한 정경식 전북정농농조합 대표, 김홍주 원광대 교수, 강대인 전남생명농업대학 학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3번의 현장체험이 포함됐다. 문의 062-373-6183.

/정상필기자 camus@



동심들의 가을 맞이

여름같은 무더운 날씨 속에도 가을의 전령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손짓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자연학습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길을 재밌게 걸으며 지나고 있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제광산업전시회·광기술컨퍼런스 23일부터 3일간 DJ센터서

해외 바이어 600명, 160개 업체 참여

학술발표·광체험·잡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

국내 유일의 광(光)산업 전문전시회인 ‘2008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제8회 국제광기술컨퍼런스(Photonics Korea & IPTC 2008)’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광세기의 창조’라는 주제로 해외 업체 60개를 비롯해 모두 16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광(光)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에 앞서 열리는 프레 행사 성격으로 예년보다 규모가 커지고 부대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회장은 삼성전자·LG이노텍 등 국내 광 관련 대기업 홍보관과 광 관련 10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광산업 공동홍보관으로 구성된다.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와 신기술 신제품 발표 세미나도 주요 행사로 열린다.

부대 행사로는 세계 최대 레이저 기업인 독일 트롬프사의 최근 레이저 분야 신기술 동향에 대한 학술발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LED(발광다이오드) 공동 홍보관 운영, FTTH(태네 광가입자 서비스) 특별체험관, 광주 초·중·고 광산업발명동아리 발명품 전시 및 경연대회, 광 관련 업체 취업과 진직 희망자를 위한 잡(Job)페스티벌 등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규모면에서 참가업체 수가 지난해 120개(220개 부스)에서 160개(260개 부스)로 늘었고 참석 해외 바이어도 15개국 467명에서 18개국 600여명으로 늘었다. 수출 상담 역시 823억원에서 올해는 1천100억여원으로, 수출계약은 35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내년에 열리는 ‘광주세계광엑스포’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광 관련 시장동향 파악과 국내외 기업 간 기술 제휴, 기업유치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광산업 생산제품의 85% 이상이 수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상담회를 통한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빛고를 시민UCC 공모전 정선희씨 ‘Sound...’ 대상

광주시가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앞두고 실시한 ‘빛고를 희망찾기 시민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에서 정선희씨의 ‘Sound of Silence’가 대상을 차지했다.

일반 부문과 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7편의 작품이 응모해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9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일반부 우수상은 유명상씨의 ‘구경한 번 와보세요’, 학생부 우수상은 김영민씨의 ‘Good World’가 차지했다.

이밖에 장려상은 김영민씨의 ‘아름다운 동행’, 임성열씨의 ‘미워할 수 없는 그대’, 김은영씨의 ‘하나되는 광주 시민’, 백경민씨의 ‘꿈꾸는 휠체어’, 김소연씨의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영씨의 ‘우리동네 문화소풍’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는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후의 광주시 공모전은 “내년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씩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노인들 두번 울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

예정 시간 출입 막아 수백여명 항의 소동

“2008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최 측인 광주시가 식전 행사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람회장에 들어가기려는 노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는 각 구청 등에서 배포한 행사 일정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오전 9시에 시작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튿날 아침부터 300명여 명의 노인들이 몰렸다.

하지만 이들은 행사가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도 박람회장에 들어 갈 수 없었다. 박람회장 앞

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통제 이유는 행사장 건물 밖에서 2시간 가량 식전행사가 개최되며 11시30분 테이프 컷팅 이후에야 내부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더운 날씨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주최 측은 오전 10시40분에 출입문을 열었고 수 백 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 행사 일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남동성당사이) (062)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227-9970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정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설립명목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입
 Tel:062)973-9174, 016-757-8800

수원지구 상업용지

철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역지개발지구
 이주지역
 법의인도인택지
 생활대역권

신창역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전용 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전
 생산녹지 : 2800평-평등권간인근 특가상권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짜기 측사 등)
 단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짜기상업용 매대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철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기름값 절약만으로 심야전기 보일러를 빌려쓰는 제도!
지금 즉시 신청하십시오!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생산공장 가격으로!!! 딱 1개월 특혜설치

| 난방면적 (㎡) | 보일러용량 (리터) | 보일러용수기 (kw) | 한전 불입금 | 생산공장 가격 | 현재대리점 가격 | 한전불입금포함 소비자가격 |
|-----------|------------|-------------|-----------|-----------|-----------|---------------|
| 23~27(7) | 500 | 6kw | 250,400 | 2,929,600 | 3,700,000 | 3,230,000 |
| 42~47(13) | 1000 | 13kw | 743,600 | 3,456,400 | 4,500,000 | 4,070,000 |
| 49~56(16) | 1200 | 15kw | 884,400 | 3,615,600 | 4,950,000 | 4,320,000 |
| 59~69(20) | 1500 | 19kw | 1,166,000 | 3,634,000 | 5,680,000 | 4,720,000 |

*운수기는 가격수에 따라 용량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100L, 200L, 300L)

속보 주거지역 금년내 심야전기 용량제한될

※9월1일자로 69㎡ 이상(심야전력 25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축열식 심야 전력 호당 공급 용량 제한치 변경.
 1차 : 시행일 2008. 3. 3(월) 접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5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2차 : 시행일 2008. 9.1(월) 접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20kw까지 공급

심야보일러는 반영구적이고 보온력이 뛰어난 우레탄이 좋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 지금 전화통화이면 설치완료
-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난방온도 60°C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월난방비용 400,000~600,000원 이상 사용가정

난방온도 90°C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가정 한달 난방비 약 6~10만원선이면 OK

시공 방법 기존의 방비덕은 전혀 손대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떼어난 지리에 간단하게 연결부착 시공합니다.

심야보일러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밤10시~아침8시까지)에 남아도는 값싼전기로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90°C까지 미리 데운 대형보온용 온수저장통에 저장한 후 하루종일 내내 지속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말하며 심야 전기요금 은 일반전기, 기름값의 1/4에 불과한 저렴한 할인제 요금을 적용합니다.

※ 심야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누진세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요금은 값싼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값이 싸입니다.

◎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완벽한시공 - 설치고객 ◎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연/중/무/휴** **무료상담 080-909-0088**
경동 대성 심야전기 사업부 **주·야 상담대기** **상담소장 010-9469-9373**